

※ 2021년 6월 5일 시행 서울시 생물 총평

단원	2021년		2020년	2019년 (2월)	2019년 (6월)	2018년
	문항 수	비율				
I 분자와 세포	6문제	30%	4문제	3문제	5문제	6문제
II 유전학	7문제	35%	6문제	7문제	4문제	6문제
III 진화생물학	1문제	5%	0문제	0문제	3문제	1문제
IV 생물다양성	1문제	5%	2문제	1문제	1문제	2문제
V 동물의 구조와 기능	4문제	20%	6문제	6문제	4문제	3문제
VI 식물의 구조와 기능	1문제	5%	2문제	2문제	3문제	1문제
VII 생태학	0문제	0%	0문제	1문제	0문제	1문제

이번 6월 5일 시행한 서울시 생물 문제는 예년보다 약간 쉽다는 느낌의 수준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며, 출제범위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I, II, V 단원에서 85%가 출제되었습니다.

분자와 세포단원에서 2020년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세포소기관, 광합성에 관한 문제도 출제되었으며,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된 느낌입니다.

특별하게 난이도 있는 문제도 없었으며 ‘2021하이클래스 생물’ 개념교재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으므로 개념교재만 충실하게 숙지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풀어나갔을 것이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한 두문제만 예를 들어본다면 12번의 ①번 “비로이드는 단백질 껍데기에 싸인 원형 RNA분자”라는 선택지가 출제되었는데 하이클래스 생물 613쪽에 비로이드는 “단백질 껍데기가 없는 원형 RNA분자”라고 서술되어 있고 614쪽 Check Point에 프라이온, 바이로이드, 바이러스 등이 있는 표에서도 모두 단백질을 갖지만 바이로이드만 단백질 ‘없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으니까 ①번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9번 문제 ① 상어 ② 가오리 ③ 참치 ④ 홍어 중에서 경골어류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는 하이클래스 생물 759쪽에 경골어류(상어, 가오리, 홍어)와 연골어류(붕어, 참치, 송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그 많은 어류 중에서 19번 문제의 선택지에 있는 4종류가 하이클래스 생물에 서술되어 있는 어류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2021년에도 기출문제가 복원된 경기, 경북, 서울 모두 ‘2021하이클래스 생물’의 적중률은 10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음만 조급한 결과 문제풀이를 서둘러 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교재의 모든 내용을 충실하게 꼼꼼히 공부한 후 기출천재와 단원별, 모의고사별 문제풀이를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항상 수험생들의 건승과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